

히브리어 ‘하야(היא)’ 사동구문의 번역

김유기*

1. 서론

성서 히브리어 ‘하야(היא)’ 동사의 사동형은 한국어 번역본에서 다양한 형태로 옮겨진다. 주로 ‘살다’의 어간에 사동접사 ‘-리-’가 붙은 ‘살리다’를 활용한 형태가 많이 사용되지만 ‘-게 하다’가 붙은 ‘살게 하다’로 옮겨지기도 한다. 이 두 표현은 모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살리다’와 ‘살게 하다’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의미가 뚜렷이 구분된다. ‘하야’ 동사의 사동형을 번역할 때 이 두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번역문을 읽는 독자는 그 의미를 원문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은 성서 히브리어 ‘하야’ 사동구문을 구체적인 문맥에서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룬다. 먼저 일반적인 사동구문이 어떤 형식과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 후, 히브리어 ‘하야’의 피엘 형과 히필 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본다. 또한 한국어 동사 ‘살다’와 이 동사의 사동형인 ‘살리다’와 ‘살게 하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주요 한국어 번역본 성경이 ‘하야’의 피엘 형과 히필 형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몇몇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번역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오늘날의 한국어

* 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근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부교수. ykim@swu.ac.kr.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를 반영하는 번역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2. ‘하야’ 사동구문

이 장에서는 먼저 사동구문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간략히 다룬 다음, 이를 바탕으로 히브리어 ‘하야’ 사동구문과 한국어 ‘살다’ 사동구문의 특성을 알아본다.

2.1. 사동구문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동(使動)’을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로 정의한다.¹⁾ 사동구문은 어떤 상황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 서술어가 사동의 기능을 하는 구문을 가리킨다.²⁾ 원인을 제공하는 사동의 주체를 ‘사동주(使動主)’라 하고 그 영향을 받는 제3의 대상을 ‘피사동주(被使動主)’라 부른다. 캄리(B. Comrie)는 사동구문을 형태에 따라 분석적(analytic causative), 형태론적(morphological causative), 어휘적 사동(lexical causative)의 세 유형으로 나눈다.³⁾

- (1) 가. 선생님이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다.
- 나. 선생님이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 다. 그는 집에서 상추를 기른다.

분석적 사동인 (1가)에는 “먹게 한다”라는 하나의 서술어에 ‘하다’라는 사동주의 원인 행동과 ‘먹다’라는 피사동주의 결과 행동이 나뉘어 나타난다.⁴⁾ (1나)는 형태론적 사동으로 ‘먹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사동접사 ‘-이-’를 붙여 하나의 서술어로 원인 행동과 결과 행동을 모두 표현한다.⁵⁾ (1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동2(使動)”, https://stdict2.korean.go.kr/searchi/List_dic.jsp (2019. 3. 1.).

2) B.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166.

3) Ibid., 167.

4) 최동주에 따르면, ‘-게 하다’ 형태의 사동구문은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 사이에 쓰이기 시작했다. 최동주, “국어 사동구문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27 (2000), 311.

5) 박정운은 오늘날 한국어에서 사동접사를 사용하는 사동을 형태론적 사동보다는 어휘적 사동에 가깝다고 한다. 그 근거로 사동형의 생산성에 심한 제약이 있고, 사동형에 대응되는 기본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동형이 기본형과 상응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정운, “한국어 사동구문의 의미: 원형의미론적 접근”, 『언어』 28 (2003), 367-368.

는 어휘적 사동이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행동을 하나의 서술어로 표현한 점은 (1나)의 형태론적 사동과 같다. 그러나 ‘자라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닌 ‘기르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차이는 의미의 차이와 연결된다. 캄리는 사동의 의미를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⁶⁾ 그 가운데 하나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구분이다. 이것은 원인 상황과 결과 상황이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피사동주의 제어(制御) 정도이다. 캄리에 따르면 어휘적 사동에 가까울수록 직접 사동에 가까우며 피사동주의 제어 정도는 약해진다. 반면 분석적 사동에 가까울수록 간접 사동에 가깝고 피사동주의 제어 정도가 강하다. 형태론적 사동은 그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한다.⁷⁾

(1가)의 ‘먹게 하다’는 먹는 주체, 즉 피사동주인 “아이”의 능동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지만 (1나)의 ‘먹이다’는 “아이”의 능동적인 역할이 (1가)에 견주어 볼 때 훨씬 적으며 사동주인 “선생님”의 주도성이 강조된다. 더 나아가 (1다)의 경우에는 피사동주인 “상추”의 능동적 역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어휘적 사동은 세 유형 중 일반적으로 피사동주의 통제력이 가장 약하다.

성서 히브리어의 사동구문도 이 세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⁸⁾

- (2) 가. על-כן לא-נתחייך לנגע אליה (창 20:6) <분석적 사동>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여자를 건드리게 놔두지 않았다.
 나. ויקח יעקב אבן וירימה מצבה (창 31:45) <형태론적 사동>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
 다. ויקם קין אל-הבל אחיו ויהרגהו (창 4:8) <어휘적 사동>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살해했다.

(2가)는 ‘나탄(נתן)’ 동사를 사용하여 ‘허락’을 나타내므로 간접 사동에 가깝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2가)와 같은 분석적 사동보다는 (2나)와 같은 형태론적 사동이 훨씬 많이 사용된다. (2나)는 ‘룸(רום)’의 히필 형을 사용하여 사동을 표현한다. 히브리어의 형태론적 사동은 히필 형뿐만 아니라 피엘 형으로도 표현되는데, 히브리어의 피엘과 히필은 한국어의 파생 접사를 사용한 사동형보다 훨씬 다양하게 사용된다.⁹⁾ 이 두 유형은 직접 사동과 간

6) B.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171.

7) Ibid., 172-174.

8) 이 글에 인용된 히브리어 예문의 한국어 번역은 저자가 제안하는 번역으로서 특정한 한글 번역본을 따르지는 않는다.

9) 박정운, “한국어 사동구문의 의미: 원형의미론적 접근”, 364에 따르면 형태론적 사동형인 “단형사동은 현대국어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접 사동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2다)는 ‘죽다’를 의미하는 ‘모트(מות)’의 사동을, 형태적으로 관련이 없는 ‘하라그(הרג)’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휘적 사동으로 직접 사동에 가깝다. 이제 히브리어 ‘하야’와 한국어 ‘살다’의 사동구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하자.

2.2. 히브리어 ‘하야’ 사동구문

히브리어 사전 *BDB*에 따르면 ‘하야’의 칼 형(기본형)은 ‘살다(live)’와 ‘살아나다(be quickened, revive)’의 두 의미를 지닌다.¹⁰⁾ 다른 히브리어 사전 *HALOT*에서는, ‘살아 있다(to be alive, to stay alive)’, ‘무언가를 힘입어 살다(to live by something)’, ‘회복되다(to revive, recover)’, ‘되살아나다(to return to life, revive)’의 네 가지 주요 의미를 제시한다.¹¹⁾ 두 사전 모두 ‘하야’의 칼 형을 뜻풀이하면서 살아 있는 상태 또는 다시 살아나는 사건과 관련시킨다.

‘하야’ 동사의 피엘 형과 히필 형 역시 칼 형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보존하고 있다. *BDB*에 따르면 ‘하야’의 피엘은 ‘살아 있게 하다(preserve alive, let live)’, ‘생명을 주다(give life)’, ‘살리다(quicken, revive, refresh)’의 주요 의미가 있으며 히필에도 ‘살아 있게 하다(preserve alive, let live)’, ‘살리다(quicken, revive)’의 주요 의미가 있다.¹²⁾ *HALOT* 역시 ‘살아 있게 하다(to let live, preserve alive)’와 ‘되살리다(to bring [back] to life)’를 피엘의 주요 의미로 제시하며 ‘살려 두다(to keep alive)’와 ‘되살리다(to revive)’를 히필의 의미로 제시한다.¹³⁾

이처럼 ‘하야’ 동사는 피엘 형과 히필 형 모두에서, 어떤 대상을 살아 있는 상태로 두는 행동과 살아나도록 상태를 변화시키는 행동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BDB*와 *HALOT* 모두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행동을 첫 번째 의미로 제시하면서 이 의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구절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하야’ 동사의 피엘과 히필 사이에 다른 점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예니(E. Jenni)는 피엘과 히필 사이에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는 ‘아바드(אבד)’ 동사를 예로 들어 그 차이를 설명하면서 피엘 형은 작위형(faktitiv)으로, 히필 형은 사동형(kausativ)으로 나누어 설

10) *BDB*, 310-311.

11) *HALOT*, 309.

12) *BDB*, 311.

13) *HALOT*, 309-310. 피엘의 세 번째 의미로 호 14:7[8]에 나오는 ‘곡식을 기르다(to grow corn)’가 제시되어 있다.

명한다.¹⁴⁾ 예니에 따르면 자동사의 경우 피엘은 동사가 나타내는 형용사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한다는 점을 표현하는 반면, 히필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점을 표현한다.¹⁵⁾ 예니는 ‘하야’ 동사 역시 피엘과 히필에서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예니에 따르면, ‘하야’의 피엘 형은 죽음의 상태와 대조되는 삶의 상태에 이른 것을 표현하며 죽음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견져 내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하야’의 히필 형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표현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¹⁶⁾ 이러한 예니의 구분은, 미묘한 의미 차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분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¹⁷⁾ ‘하야’의 히필과 피엘이 가까운 문맥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를 아래에서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려 한다.

이에 반해 라이더(S. A. Ryder)는 형태와 기능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부정하며 특정 유형의 기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유형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¹⁸⁾ 실제로 ‘하야’의 피엘과 히필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뚜렷한 의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를 띠는가보다는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가에 따라서 훨씬 의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하야’ 동사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284회 나오는데, 칼 형으로 205회, 피엘 형으로 56회, 히필 형으로 23회 쓰인다.¹⁹⁾ 구약 성서에서 ‘하야’ 동사는 이 세 유형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피엘과 히필의 활용형을 조사해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14) E. Jenni, “Faktiv und kausativ von חָיָה ‘zugrunde gehen’”, Benedikt Hartmann et al. eds., *Hebräische Wortforschung: Festschrift zum 80. Geburtstag von Walter Baumgartner*, VTSup 16 (Leiden: Brill, 1967), 143-157.

15) E. Jenni, *Das hebräische Pi‘el: Syntaktisch-semasiologische Untersuchung einer Verbalform im Alten Testament* (Zurich: EVZ-Verlag, 1968), 275-276. 예니(E. Jenni)는 피엘 형의 자동사를 ‘faktiv’로, 타동사를 ‘resultativ’로, 히필 형은 ‘kausativ’로 그 기능을 정의한다. 예니의 이러한 구분은 다음과 같은 최근 히브리어 문법서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Bruce K. Waltke and Michael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00-408; Christo H. J. van der Merwe, Jacobus A. Naudé, and Jan H. Kroeze,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nd ed. (London: Bloomsbury, 2017), 88-89.

16) E. Jenni, *Das hebräische Pi‘el: Syntaktisch-semasiologische Untersuchung einer Verbalform im Alten Testament*, 61-64.

17) 피엘과 히필의 차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 글의 논지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피엘과 히필의 의미 차이에 관한 예니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8) S. A. Ryder, II, *The D-Stem in Western Semitic* (The Hague: Mouton, 1974), 97.

19) Ibid., 98에 따르면, *hyy*(= *hyh*) 동사가 아랍어에서도 히브리어의 피엘에 상응하는 D형과 히필에 상응하는 Š형에 모두 나타나는데, 히브리어와 달리 Š형에 더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표 1> ‘하야’ 동사 피엘과 히필의 활용

	완료	미완료	와우- 완료	와우- 미완료	부정사 연계	부정사 절대	분사	명령	계
피엘	6	28	1	3	6	0	2	10	56
히필	9	0	1	0	10	1	0	2	23

‘하야’ 동사의 피엘과 히필은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인다. 피엘은 미완료에서 28회 나타난다. 이는 ‘하야’가 피엘로 쓰인 전체 56회 중에서 50%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히필은 단 한 번도 미완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피엘은 와우-미완료로 3회 나타나지만 히필은 와우-미완료로 쓰이지 않는다. 완료형으로는 피엘이 6회(피엘 중 10.7%), 히필이 9회(히필 중 39.1%) 나타난다. 비록 자료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구약성서만을 볼 때에 ‘하야’ 정동사의 피엘은 (와우-)미완료형을 선호하며 히필은 (와우-)완료형으로만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정사 연계형은 히필에서 전체 23회 가운데 10회(43.5%)를 차지하며 피엘에서는 56회 중 6회(10.7%)에 걸쳐 나온다. 명령형의 경우 피엘이 10회(피엘 중 17.9%) 사용됨으로써 2회(히필 중 8.7%) 사용된 히필보다 두드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피엘의 10회 중 9회는 시편 119편에 나오므로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²⁰⁾

‘하야’의 피엘과 히필이 서로 가까운 문맥에서 나오는 경우로 창세기 19장, 민수기 31장, 여호수아 9장, 에스겔 13장을 살펴본다.²¹⁾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건져 주신 사건에 관해 말하면서(19절) 히필을 사용한다. 반면 롯의 큰딸은 동생에게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는 일에 관해 말하면서(32, 34절) 피엘을 사용한다. 민수기 31장에서 모세가 군대의 우두머리들에게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 둔 것을 비난하며 질문할 때(15절) 피엘을 사용한다. 반면 모세가 이 미디안 여자들 중 일부를 살려 두라고 명령할 때(18절)에는 히필을 사용한다.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그들을 살려 두라고 명령할 때(15절) 피엘을 사용한다. 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살려 두라고 명령할 때(20절) 히필을 사용한다. 에스겔 13장에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면서(18절) 살지 못할 사람을 살게 한다는(19절) 말씀에 피엘이 반복되

20) 시 119:25, 37, 40, 88, 107, 149, 154, 156, 159.

21) 이 밖에도 예니는 창 7:3(피엘)과 6:19-20(히필), 왕하 7:4(피엘)와 5:7(히필) 및 8:1, 5(히필)를 비교한다. E. Jenni, *Das hebräische Pi'el: Syntaktisch-semasiologische Untersuchung einer Verbalform im Alten Testament*, 62-63.

어 사용되지만 그들이 악한 사람을 돌이켜 살게 하지 않는다는(22절) 말씀에는 히필이 사용된다.²²⁾

예니는 위의 네 경우 모두 피엘은 단번에 죽음이나 위기에서 건져 내 주는 일회성을 표현하는 반면 히필은 그 이후 지속적인 삶의 과정을 표현한다고 한다.²³⁾ 예를 들어, 여호수아 9장에서 15절은 약속을 맺는 순간에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예외를 적용하여 살려 주는 데에 관심이 있지만 20절은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는 직관적이고 임의적인 면이 있다. 15절의 경우, 여호수아가 예외를 적용하여 죽일 사람을 살려 준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멀리 사는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 지속적인 삶이 강조된다고 볼 수도 있다.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무리가 불평하는 가운데(18절)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 주기로 결정을 내리고 있으므로 일회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세 곳에서도 피엘과 히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창세기 19장에서는 두 유형 사이에 어느 정도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문맥에 따라 생겨난 것일 뿐 형태에 따른 차이는 아니다.

피엘 형과 히필 형은 모두 직접 사동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간접 사동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간접 사동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하야’의 형태론적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하야’의 피엘 형과 히필 형 사이의 차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두 유형 사이에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유형 모두 일종의 사동형을 표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칼을 기본형으로 보고 피엘과 히필을 한데 묶어서 사동형으로 다루고 있다.

2.3. 한국어 ‘살다’ 사동구문

한국어의 사동구문은 형태적으로 단형사동(短形使動)과 장형사동(長形使動)으로 나눌 수 있다. 단형사동은 아래의 (3가)처럼 주로 동사나 형용사

22) 겔 13:18에 나오는 ‘하야’의 피엘을 『개역개정』이 ‘살리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 이 동사는 예언하는 여자들이 예언의 대가로 보리와 빵(19절)을 받아먹으며 목숨을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Leslie C. Allen, *Ezekiel 1-19*, WBC 28 (Dallas: Word, 1998), 204. 이런 맥락에서 18절의 ‘하야’ 피엘은 19절의 ‘하야’ 피엘이나 22절의 ‘하야’ 히필과 의미상 구분되지만, 형태상의 구분은 없다.

23) E. Jenni, *Das hebräische Pi‘el: Syntaktisch-semasiologische Untersuchung einer Verbalform im Alten Testament*, 62-63.

24) Ibid., 63.

의 어간에 사동을 나타내는 접사가 붙어 있고 장형사동은 (3나)처럼 사동접사 없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보조용언이 뒤따른다.²⁵⁾ 장형사동은 주로 간접 사동과 관련되며 단형사동은 대부분 직접 사동을 표현한다.²⁶⁾

단형사동에서는 사동주의 주도성이 강한 반면 피사동주의 제어 정도는 약하며 장형사동에서는 사동주의 주도성이 비교적 약하며 피사동주에게 어느 정도 제어 능력이 있다.

(3) 가.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다.

단형사동인 (3가)에서는 사동주 “어머니”의 주도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피사동주(“아이”)의 의지는 비교적 적게 드러난다. 이에 반해 (3나)와 같은 장형사동에서는 흔히 피사동주의 제어 능력이 어느 정도 전제된다.

한국어 ‘살다’에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주요 의미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확장된 여러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와 달리 ‘살아나다’의 의미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²⁷⁾ ‘살다’에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리-’가 붙은 ‘살리다’는 실제로나 개념적으로 죽어 있거나 죽어 가거나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이 의미가 전이되어, ‘경제를 살리다’나 ‘나라를 살리다’처럼 은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장형사동인 ‘살게 하다’는 ‘살리다’와 달리 은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아래 (4)에서 볼 수 있듯이 ‘살게 하다’는 주로 생명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4) 가. 하나님이 그를 백 살까지 살게 하셨다.

나. 하나님이 그를 백 살까지 살리셨다.

오늘날 한국어에서 (4가)는 자연스럽지만 (4나)는 어색하다. 물론 후기 중세 한국어라면 (4나)가 자연스러운 문장이었을 것이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살이다’는 오늘날 한국어와 달리 ‘살게 하다’, 또는 ‘거주하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월인석보』 2:77).²⁸⁾ 이와 달리 오늘날 한국어에서 ‘살게 하다’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데에 쓰일 수 있지만

25) 장형사동은 분석적 사동을 가리키며, 단형사동에는 형태론적 사동과 어휘적 사동이 포함되지만 여기에서는 형태론적 사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6) 김성주, “한국어 사동문의 유형론적 위치”, 『동국어문론집』 8 (1999), 147-148.

2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살다1” https://stdict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9. 3. 1.) 참고.

28) 최동주, “국어 사동구문의 통시적 변화”, 311-312; 박정운, “한국어 사동구문의 의미”, 365.

‘살리다’는 그렇지 못하며 주로 일회적으로 살리는 사건을 표현한다.²⁹⁾

오늘날 한국어에서 ‘살리다’는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살다’의 사동형으로 보이지만 의미로 볼 때 ‘살아나다’의 사동형에 가깝다.³⁰⁾ 기본형 ‘살다’는 흔히 주어가 목숨을 이어가는 상황을 표현하며, 살아나는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그 사동형인 ‘살리다’는 ‘목숨을 이어가게 하다’라는 의미의 ‘살게 하다’보다는 ‘살아나게 하다’와 관련된다.

- (5) 가. 의사가 죽어 가던 환자를 살렸다.
나. 의사가 죽어 가던 환자를 살게 했다.

일반적인 문맥에서는 위의 두 문장 가운데 (5나)보다 (5가)가 자연스럽다. ‘살게 하다’는 주로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살린 일회적 사건을 분명히 표현하려면 ‘살리다’가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군다나 피사동주인 환자의 의지보다는 사동주인 의사의 주도성이 강조되는 문맥에서는 더욱 그렇다.

‘살리다’가 보조동사와 결합하여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하거나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동사 ‘주다’, ‘두다’, ‘내다’와 결합한 ‘살려 주다’, ‘살려 내다’, ‘살려 두다’가 대표적이다. ‘살려 주다’는 목숨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의 행동이 그 행동의 영향을 받아 살아난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쓰인다. ‘살려 내다’는 목숨을 구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의 행동이 힘겨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살려 두다’는 살리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그 행동을 한 후 피사동주가 계속 살아 있도록 함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죽지 않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결합 형태 중 ‘살려 주다’와 ‘살려 내다’는 죽음에서 건져 내는 일회적인 사건에 초점이 있는 반면, ‘살려 두다’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좀 더 지속적인 사건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살게 하다’와 비슷한 면이 있다.

히브리어의 피엘이나 히필 사동구문과 달리 한국어 사동구문은 형태적으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분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어는 보조동사를 사용하여 사동의 의미에 약간의 변화를 더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는 ‘하야’의 피엘 형이나 히필 형을 한국어 ‘살다’에서 나온 표현으로 옮길 때 이 동사의 여러 사동 형태 중 문맥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고를 필요가 있다.

29) ‘떡여 살리다’처럼 ‘살리다’가 ‘떡이다’에 이어서 나올 경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결 형태에 사용된 ‘살리다’에는 계속 살게 한다는 의미가 남아 있다.

30) 실제로 『개역개정』은 시 119:25, 37, 40, 88, 107; 138:7에서 ‘하야’의 피엘을 ‘살아나게 하다’로 옮기고 있다.

3. 한국어 번역

이 장에서는 한국어로 된 주요 공역 성서에서 ‘하야’의 피엘과 히필을 ‘살리다’와 ‘살게 하다’를 사용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려 한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한글 번역본인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을 중심으로 ‘하야’ 사동구문이 어떻게 옮겨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3.1에서는 ‘하야’ 사동구문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옮겨져 있는지 살핀다. 3.2에서는 세 번역이 같은 표현을 사용해 옮긴 경우 번역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살핀다. 3.3에서는 세 번역이 같게 옮기지 않는 몇몇 구절들의 번역을 비교하는데, 여기서는 사동주가 사람인 경우(3.3.1)와 하나님인 경우(3.3.2)로 나누어 살펴본다.

3.1. 한국어 번역본의 ‘하야’ 사동구문 번역

구약성서에서 ‘하야’ 사동구문은 피엘 56회, 히필 23회로 전체 79회 나타난다. 『개역개정』은 이 79개의 동사 중 48개를 ‘살리다’로 번역한다. 그 가운데 3개에는 ‘주다’, 8개에는 ‘두다’라는 보조동사가 뒤따르며 37개는 보조동사 없이 옮긴다. 아울러 ‘살리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한자어 ‘소생시키다’(사 57:15; 2회), ‘소생하게 하다’(시 80:18[19])도 사용된다. 『공동개정』은 45개를 ‘살리다’로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 26개에는 ‘주다’, 10개에는 ‘두다’, 1개에는 ‘내다’라는 보조동사가 뒤따르며 8개는 보조동사 없이 옮긴다. 『새번역』은 41개 동사를 ‘살리다’로 번역했는데, 그중 23개에는 ‘주다’, 11개에는 ‘두다’라는 보조동사가 뒤따르며 7개는 보조동사 없이 옮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하야’ 동사 사동형을 ‘살리다’로 번역한 경우 (전체 79개 중)

보조동사	없음	‘주다’	‘두다’	‘내다’	계
『개역개정』	37	3	8		49
『공동개정』	8	26	10	1	45
『새번역』	7	23	11		41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세 번역 모두 ‘하야’ 사동구문 중 반 이상을 한국어 ‘살다’의 단형사동인 ‘살리다’로 옮기고 있다. 한편 보조동사의 사용에서 번역본들은 차이를 보인다. 『개역개정』은 대부분의 경우 보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옮긴 반면 『공동개정』이나 『새번역』은 보조동사 ‘주다’가 뒤따라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개역개정』에 비해 다른 두 번역이 실

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살려 주다’를 ‘살리다’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살리다’와 ‘살려 주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 내어 삶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와 달리 ‘살려 두다’는 살아 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면에서 앞의 두 표현보다는 살리는 행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살려 두다’로 옮기는 경우는 세 번 역 모두 10회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살다’의 장형사동인 ‘살게 하다’는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각각 3회, 『공동개정』에서 1회 사용된다.³¹⁾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 장형사동보다 단형사동이 훨씬 많이 쓰이는 것이다. 또한 단형사동 중에서도 ‘살리다’와 ‘살려 주다’가 많이 쓰인다. 이는 번역본들이 원문의 ‘하야’ 사동형 가운데 대부분을 죽을 위기나 상황에서 건져 내거나 죽음에서 되살려 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살다’의 단형사동인 ‘살리다’가 ‘살게 하다’의 의미를 지녔던 과거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³²⁾

3.2. 번역본들이 일치하는 경우

세 번역본이 같은 표현으로 ‘하야’ 사동구문을 옮긴 경우를 중심으로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이런 경우는 모두 9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4회는 ‘살려 두다’(출 1:22; 22:18[17]; 민 31:18; 욥 36:6)로, 2회는 ‘살리다’(왕상 18:5; 왕하 5:7)로, 나머지는 ‘살려 주다’(수 2:13), ‘살게 하다’(신 6:24), ‘기르다’(사 7:21)로 옮긴다.

세 번역본이 ‘살려 두다’로 번역한 네 구절은 죽이는 행동과 관련된다. 두 구절(출 1:22; 민 31:18)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죽이라는 명령과 대조되어 나오며 다른 두 구절(출 22:18[17]; 욥 36:6)은 ‘하야’ 동사가 부정문에서 미완료형으로 쓰여 죽이라는 명령이나 죽인다는 진술을 표현한다.³³⁾ 이런 문맥에서 ‘하야’ 사동구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하므로 ‘살려 두다’로 옮긴 세 번역본의 번역은 적절하다.

31) 『개역개정』: 신 6:24; 시 41:2[3]; 119:93; 『새번역』: 신 6:24; 32:39; 시 41:2[3]; 『공동개정』: 신 6:24. 아울러 『새번역』의 수 14:10과 『공동개정』의 창 45:7은 ‘살아 남게 하다’로, 『공동개정』의 수 14:10은 ‘살아 있게 하다’로 옮기고 있다.

32) 박정운, “한국어 사동구문의 의미”, 365-367.

33) 출 1:22의 경우 『개역한글』에서 ‘살리다’였던 것을 『개역개정』에서 본래의 뜻에 맞게 ‘살려 두다’로 바꾸어 옮긴 것이다.

다음으로, 세 번역본이 모두 ‘살리다’로 번역한 두 구절을 들여다본다. 열왕기상 18:5는 가뭄에 물이 없어 죽을 형편에 놓인 가축이 피사동주로 등장한다. 아합은 오바다에게 가축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 물과 목초지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살리다’라는 표현은 죽었거나 죽어 가는 가축이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물론 가축이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합의 관심은 가축이 살아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재산인 가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바로 이어 나오는 표현, ‘가축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ולוא נכרית מהבהמה)는 이런 의미를 잘 드러내 준다. 주요 영역본들 역시 ‘하야’의 피엘을 “keep ... alive”로 옮기고 있다(NAS, NIV, NKJ, NRS, TNK). 물론 영어와 한국어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의미를 적절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살게 하다’ 등의 표현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열왕기하 5:7에서 이스라엘 임금인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죽이거나 살려 두거나 할 수 있다는 말이나?”(האלהים אני להמית ולהחיות) 하고 질문한다. 여기서 ‘하야’의 히필을 세 번역본은 모두 ‘살리다’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아 있게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역본이 ‘하야’ 사동구문을 ‘살려 주다’로 옮기는 여호수아 2:13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 사람들을 죽일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동주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며 일회적으로 목숨을 구해 준다는 의미를 지닌 ‘살려 주다’라는 번역은 적절하다.

세 번역본이 ‘하야’ 사동구문을 ‘살게 하다’로 옮기는 신명기 6:24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나온다. 하나님이 날마다 잘해 주시고 오늘날처럼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살게 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며 세 번역은 이를 ‘살게 하다’로 적절히 옮기고 있다.

세 번역본이 ‘하야’ 사동구문을 ‘기르다’로 옮기는 이사야 7:21에서는 유다가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는 어느 날 한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나온다.³⁴⁾ 한글 번역본들은 ‘살다’의 사동형을 사용하지 않고 문맥에 어울리도록 ‘기르다’를 사용하여 옮기고 있다. 여기에서는 힘겨운 상황에서 아주 적은 가축만을 기르는 상

34) 삼하 12:3에도 양을 피사동주로 하는 ‘하야’ 사동구문이 나온다. 여기서 ‘하야’의 피엘을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기르다’로, 『새번역』은 ‘키우다’로 옮긴다. 영역본도 이 동사를 “brought ... up”(ESV, NRS), “nourished”(NAS, NKJ), “raised”(NIV), “tended”(TNK) 등으로 다양하게 옮긴다.

황을 묘사하고 있다. ‘살리다’를 사용해서 옮긴다면, ‘살려 두다’와 같은 표현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³⁵⁾

3.3. 번역본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야’ 사동구문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살리다’나 ‘살려 주다’ 등 일회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어 옮기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좀 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살려 두다’나 ‘살게 하다’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동주가 사람인 경우와 하나님인 경우로 나누어 몇몇 예를 살펴본다.

3.3.1. 사동주가 사람인 경우

사동주가 사람인 ‘하야’ 사동구문을 한글 번역본이 다르게 옮긴 여러 경우 가운데 두 곳을 살펴본다.

(6) 창세기 12:12

그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 둘 거요.

והרגו אתי ואתך יחיו

(6)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사라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라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를 피사동주로 갖는 ‘하야’의 피엘을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살리다’로, 『공동개정』은 ‘살려 두다’로 옮긴다. 이 문맥에서 죽이는 것과 대비되는 행위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공동개정』의 ‘살려 두다’가 더 적절한 번역이다.

(7) 열왕기하 7:4

그들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
면 우리는 사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
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는 거야.

אם־יחיו נחיה ואם־ימתנו
ומתנו

(7)에서는 피부병 환자 네 명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리아 군대에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성 안에 있더라도 굶어 죽을 테니 시리아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항복하자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시리아 군대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한다. ‘하야’ 사동

35) 영역본은 사 7:21에 나오는 ‘하야’ 동사를 주로 “keep alive”로 옮긴다(ESV, NAS, NIV, NKJ, NRS).

구문을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살려 주다’로 옮기지만 『개역개정』은 ‘살려 두다’로 옮기고 있다.

이 피부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포위공격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살려 주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ואם ימיתנ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환자들이 생각하는 시리아 군사들의 선택은 그들을 죽이거나 그대로 살아 있게 하는 것이다. 살리거나 살려 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시리아 군사들의 도움이 없으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므로 그들이 시리아 군사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은 단순히 목숨을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살려 주다’보다는 ‘살려 두다’가 더 나은 표현이다. 더 나아가 ‘살게 하다’나, (8)에서처럼 ‘살 수 있게 해 주다’ 등으로 옮길 수도 있다. 한글 번역본 가운데 『개역개정』만 『개역한글』의 전통을 이어받아 ‘살려 두다’로 옮겼으며 다른 두 번역은 ‘살려 주다’를 선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야’ 사동구문의 사동주가 사람인 경우에는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살리다’나 ‘살려 주다’보다는 ‘살게 하다’나 ‘살려 두다’ 등으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3.3.2. 사동주가 하나님인 경우

‘하야’ 사동구문 가운데 사동주가 ‘야훼’ 또는 ‘하나님’인 경우가 있다.³⁶⁾ 이 가운데 몇몇 예를 들여다보기로 한다.

(8) 시편 33:19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시며 굶주림이 있을 때에 그들
을 살게 하신다.

להציל ממות נפשם
ולחיותם ברעב:

(8)에 나오는 ‘하야’의 피엘을 『개역개정』은 ‘살리다’,³⁷⁾ 『공동개정』은 ‘살려 내다’, 『새번역』은 ‘살려 주다’로 옮기고 있다. 이런 번역은 죽음에서 삶을 얻게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시편 33:19는 바로 앞 18절에 언급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

36) 창 50:20; 신 6:24; 32:39; 수 14:10; 삼상 2:6; 느 9:6; 욥 36:6; 시 30:3[4]; 33:19; 41:2[3]; 71:20; 80:18[19]; 85:6[7]; 119:25, 37, 40, 50, 88, 93, 107, 149, 154, 156, 159; 138:7; 143:11; 사 38:16; 57:15(2회); 렘 49:11; 호 6:2; 함 3:2.

37) 『개역개정』의 ‘살리다’는 『개역한글』의 ‘살게 하다’를 고쳐서 옮긴 것이다.

지는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세 번역보다는 (8)의 번역과 같이 ‘살게 하신다’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9) 시편 119:93

영원히 주님 명령하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요.

לְעוֹלָם לֹא־אֲשַׁכַּח פְּקוּדֶיךָ
כִּי בָּם חִיִּיתֵנִי

(9) 역시 ‘하야’ 사동구문을 『개역개정』만 ‘살게 하다’로 번역하고 나머지 두 번역은 ‘살려 주다’로 옮긴다.³⁸⁾ 영역본들도 이 부분을 서로 다르게 옮기고 있다. 어떤 번역본은 “have given … life”(ESV, NKJ, NRS)나 “have revived”(NAS)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번역본은 “have preserved life”(NIV, TNK)로 옮기기도 한다. 바로 앞서 시편 119:92에서 저자는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려움을 겪으며 죽을 뻔했습니다’(לֹלֵי תוֹרַתְךָ שֶׁעָשִׂי אִז אֲבָרְתִי בְעֵינַי) 하고 말하고 있다. 92절의 ‘주님의 가르침’과 93절의 ‘주님 명령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저자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 나타난다. 따라서 93절에서 저자가 기대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의 ‘살게 하다’가 자연스러운 번역이다.

신명기 32:39와 사무엘상 2:6에서는 앞서 3.2에서 살펴본 열왕기하 5:7처럼 ‘하야’ 사동구문이 ‘죽다’를 뜻하는 ‘무트(מות)’의 사동구문과 함께 나온다.

(10) 가. 신명기 32:39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때리기도 하지만 손수 낫게도 한다.

אֲנִי אֵמִית וְאֲחִיָּה מֵחַצְתִּי
וְאֲנִי אֲרַפֵּא

나. 사무엘상 2:6

야훼는 죽게도 하시는 분, 살게
도 하시는 분. 스올에 내리시다가
도 올리시는 분.

יְהוָה מְמִית וּמְחִיָּה מוֹרִיד
שְׂאוֹל וְיַעֲלֵה

38) 시 119편에는 ‘하야’ 사동구문(피엘)이 11회 나온다(각주 36 참조). 그중 대부분의 경우 세 번역 모두 ‘살리다’, ‘살아나게 하다’, ‘살려 주다’로 옮기고 있으며 ‘살게 하다’로 옮긴 것은 『개역개정』의 93절 한 곳뿐이다.

(10가)는 모세의 노래(신 32:1-43)에 나오고 (10나)는 한나의 노래(삼상 2:1-10)에 나온다. 한국어 번역본은 대체로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을 죽은 사람에게 목숨을 다시 돌려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다.³⁹⁾ (10가)의 경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살아가도록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서 ‘살리다’로 번역했지만 『새번역』은 ‘살게도 하다’로 옮긴다.⁴⁰⁾ (10나) 역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 ‘살리다’로 옮기고 『공동개정』에서는 ‘무트’와 ‘하야’ 두 동사를 하나로 묶어 “생사를 쥐고 계시어”로 옮긴다. 『공동개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해 말하는 이 구절의 주요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또한 (10가)와 (10나)에 제시한 번역처럼 ‘하야’ 사동구문을 ‘살게 하다’를 활용하여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문맥에서는 ‘살게 하다’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다’의 의미뿐만 아니라 ‘살리다’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야’ 사동구문의 사동주로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약성서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개념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 기원전 2세기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한다.⁴¹⁾ 위의 (10)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방식을 예를 들어 표현하는 곳은 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동주로 한 ‘하야’ 사동구문이 운문에 나타날 때 은유적으로 쓰여 되살린다는 뜻을 지니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 57:15에 두 번 나오는 ‘하야’ 사동구문에서 피사동주는 각각 사람의 ‘기운(רוח)’과 ‘마음(לב)’이다. 호세아 6:2의 경우 피사동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하야’ 사동구문이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가리키지는 않는다.⁴²⁾

39) 영역본에서는 신 32:39의 ‘하야’ 사동형을 “make alive”(ESV, NKJ, NRS), “bring to life”(NIV), “give life”(NAS, TNK) 등으로, 삼상 2:6의 ‘하야’ 사동형을 “brings to life”(ESV, NRS), “makes alive”(NAS, NIV, NKJ), “gives life”(TNK) 등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나 클라인(Ralph W. Klein)은 삼상 2:6에 나오는 이 동사를 “preserves life”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심하게 앓거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내시는 것을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Ralph W. Klein, *1 Samuel*, WBC 10 (Dallas: Word, 1983), 12, 17.

40) 『새번역』의 ‘살게도 하다’는 『표준』의 ‘살리다’를 고쳐서 옮긴 것이다.

41) Robert Martin-Achard, “Resurrection: Old Testament”, Terrence Prendergast, trans.,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6 vols. (New York: Doubleday, 1992), 5:683.

42) 볼프(H. W. Wolff)는 여기서 ‘하야’의 피엘은 ‘살아나게 하다(make alive)’가 아니라 ‘살아있도록 유지하다(preserve alive)’를 뜻하며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Hans Walter Wolff,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Hosea*, Hermeneia, Gary Stansell, trans., Paul D. Hanson, ed. (Philadelphia: Fortress, 1974), 117.

하박국 3:2에서도 피사동주가 ‘하나님의 일’이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하나님이 ‘하야’ 사동구문의 사동주로 나타나는 경우, 하나님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런 경우 ‘살리다’나 ‘살려 주다’보다는 ‘살게 하다’나 ‘살려 두다’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4. 맺음말

한국어와 히브리어 모두 분석적 사동과 형태론적 사동을 사용하지만 성서 히브리어는 형태론적 사동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한국어는 분석적 사동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히브리어 ‘하야’ 동사는 피엘과 히필 모두에서 사동구문을 만드는데 이 둘 사이의 의미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유형을 한데 묶어 사동형으로 본다.

‘살리다’나 ‘살려 주다’ 등은 일회적이고 사동주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나타내지만 ‘살려 두다’나 ‘살게 하다’ 등은 지속적이고 피사동주의 제어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야’ 사동구문은 피엘 형이든 히필 형이든 대개 살아 있는 생명체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경우 ‘살려 두다’ 또는 ‘살게 하다’나 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어 번역본은 ‘하야’ 사동구문을 ‘살게 하다’나 ‘살려 두다’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에서, ‘살리다’나 ‘살려 주다’ 등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번역을 택한 경우도 있고 한두 번역본만 그러한 경우도 있다. 이런 번역은 본문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실제로든 개념적으로든 죽었거나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살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원문에 없는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본 주요 번역본들은 비교적 최근에 개정되었지만 직접 사동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원문의 의미를 적절히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언어의 변화를 글의 형태로 된 번역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사동접사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 특히 ‘살리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를 잃고 직접 사동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다. 따라서 ‘살리다’나 ‘살려 주다’는 실

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죽었거나 죽어 가는 대상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경우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살아 있는 대상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경우에는 ‘살게 하다’나 ‘살려 두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사동구문, 사동주, 피사동주, ‘살리다’, ‘살게 하다’.

Causative construction, Causer, Causee, ‘bring to life’, ‘let live’.

(투고 일자: 2019년 1월 27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동2”,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9. 3. 1.).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살다1”,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9. 3. 1.).
- 김성주, “한국어 사동문의 유형론적 위치”, 『동국어문론집』 8 (1999), 129-153.
- 박정운, “한국어 사동구문의 의미: 원형의미론적 접근”, 『언어』 28 (2003), 345-371.
- 최동주, “국어 사동구문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27 (2000), 303-327.
- Allen, Leslie C., *Ezekiel 1-19*, WBC 28, Dallas: Word, 1998.
- Brown, Francis, Driver, S. R., and Briggs, C. A.,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7. (BDB)
- Comrie, B.,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Freedman, David Noel, ed.,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6 vols., New York: Doubleday, 1992.
- Jenni, E., *Das hebräische Pi‘el: Syntaktisch-semasiologische Untersuchung einer Verbalform im Alten Testament*, Zurich: EVZ-Verlag, 1968.
- Jenni, E., “Faktitiv und kausativ von אָבַר ‘zugrunde gehen’”, Benedikt Hartmann et al. eds., *Hebräische Wortforschung: Festschrift zum 80. Geburtstag von Walter Baumgartner*, VTSup 16, Leiden: Brill, 1967, 143-157.
- Klein, Ralph W., *1 Samuel*, WBC 10, Dallas: Word, 1983.
- Koehler, Ludwig and Baumga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2 vols., Leiden: Brill, 2001. (HALOT)
- Ryder, S. A., II, *The D-Stem in Western Semitic*, The Hague: Mouton, 1974.
- Van der Merwe, Christo H. J., Naudé, Jacobus A., and Kroeze, Jan H., *A Biblical Hebrew Reference Grammar*, 2nd ed., London: Bloomsbury, 2017.
- Waltke, Bruce K. and O’Connor, Michael,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 Wolff, Hans Walter,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Hosea*, Hermeneia, Gary Stansell, trans., Paul D. Hanson, ed., Philadelphia: Fortress, 1974.

<Abstract>

The Translation of the Causative Constructions of *hyh*

Yoo-ki Kim

(Seoul Women's University)

Both Biblical Hebrew and Modern Korean have analytic, morphological, and lexical causative constructions. Biblical Hebrew uses the morphological causative productively while its use is more restricted in Modern Korean. The Hebrew morphological causative takes the form of a *piel* or *hiphil*. Both forms can signify either direct or indirect causation. In Korean, however, morphological causatives have become associated with direct causation while analytic causatives tend to represent indirect causation.

The Hebrew causative of *hyh* generally means either 'let live' or 'bring to life'. In most cases, the three recently revised Korean translations,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 the Common Translation of the Holy Bible (1999), and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1) render these causative forms into morphological causative constructions involving '*salida*', which can be optionally followed by an auxiliary verb such as '*juda*' or '*duda*'. While '*salida*' without an auxiliary and '*sallyeo juda*' express a direct causation and non-durative aspect, '*sallyeo duda*' expresses an indirect causation and durative aspect.

This study finds that Korean translations do not always faithfully render the Hebrew causative *hyh*: they use '*salida*' or '*sallyeo juda*' in places where '*sallyeo duda*' or '*salge hada*' (an analytic causative) is appropriate. One reason is that these translations often overlook the meaning of the verb in context. Another is that they do not fully incorporate recent semantic changes in Korean morphological causative constructions: they often resort to the morphological causative of '*salda*' to indicate an indirect causative while this usage has lost ground in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